

“보일러 설비업 규제와 시공인의 이익 침해 방지할 터”



지난 1월5일 서울 송파구 캘리포니아 호텔에서 '2006년 시무식 및 운영 간부회의'가 열렸다.

전국보일러설비협회(중앙회장 박기준 www.nanbang.or.kr)는 丙戌年 새해를 맞아 지난 1월 5일 서울 송파구 소재의 캘리포니아 호텔에서 중앙회 임직원 및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도 시무식 및 운영·간부회의'를 개최했다.

박기준 중앙회장은 신년사에서 “지난해 2월 대의원 정기총회를 시작으로 4월에는 전국시공인 체육대회, 그리고 6월에는 두 차례에 걸쳐 간부수련회를 개최하고 이어 7월부터는 국회에 계류 중이던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축법개정안의 독소조항을 바

로잡기 위해 힘겨운 나날을 보내야 했지만, 세 차례의 큰 행사를 별 무리 없이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또한 “난방시공업체의 경영실태를 협회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한 건설산업기본법은 우리협회의 적극적인 반대로 국회건설 교통위원회의 심사가 보류되어 있으며, 보일러설비 설치확인서를 협회가 작성하도록 한 건축법 개정 법률안은 협회의 확인제도가 삭제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며 작년 한해동안의 협회 실적을 설명했다.



회의가 끝난 후 모든 중앙회 임직원 및 간부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회장단이 2006년 협회의 발전을 기원하며 떡을 절단하고 있다.



박기준 회장은 이어, “우리협회는 앞으로도 보일러설비업을 규제하고 시공인의 이익이 침해당하는 어떠한 법령의 개정 움직임에도 과감히 맞서 싸워 나갈 것이며, 이미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는 국가 인정기능사의 법적지위 향상, 난방 시공업 1·2종의 통합,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기능사를 보호하기위해 양성교육의 폐지문제를 마무리 하고, 그동안 보험증권 발급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일러 관말연결비를 안전점검비로 바꿔 지역관리소와의 마찰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냉·난방기술 뿐만 아니라 가구·주방기 기까지를 설치할 수 있는 종합인테리어 기술교육도

실시하여 보일러설비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직업 능력개발과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도록 협회의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

이어 진행된 회의에서는 ▷2005년 하반기 법령 개정사항 및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의안 심의에서는 제1의안 관말 연결, 제2의안 2006년도 전국체육대회 개최 건에 대해 심의, 1의안은 원안대로 통과됐고 2의안은 좀더 면밀히 검토 후 이사회나 총회에서 결정키로 했다.

회장단이 축하떡을 절단하고 건배를 외치며 2006년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했다.

BN